



신나는 여성학 수업 만들기

2000년 1학기 여성학 수업 모니터링을 마치며

언제

6월 9일(금) 저녁 6시

어디서

연희관 112호

주최

연세대학교 제12대 총학생회

연세 여성학 자치도서관 Feminary



신나는 여성학 수업 만들기

2000년 1학기 여성학 수업 모니터링을 마치며

언제

6월 9일(금) 저녁 6시

어디서

연희관 112호

주최

연세대학교 제12대 총학생회

연세 여성학 자치도서관 Feminary

【글 쓰는 순서】

1. 연세 여성학 조소의 연주소

- ◆ 교실 안에서 1 : 모니터링 결과보고
- ◆ 교실 안에서 2 : 여성학 관련 강의의 문제점 - 여성과 문학의 경우
 - 이소희 (한양여대 교수, 연세 여성과 문학 강사)
- ◆ 교실 밖에서 1 : 연세 여성학 수업 개설과 관련된 제도적 틀
 - 김명진 (여성학 자적도서관 fminary)

2. 여성학 수업 Version Up을 위한 준비

- ◆ 서울시립대학교 여성학 관련 강좌 개설 과정 - 총여학생회 활동 중심으로
 - 이신인경(서울 시립대학교 제14대 총여학생회 부회장)
- ◆ 강사가 본 여성학 수업 Version Up의 과정
 - 권수연(서울 시립대학교 여성학 강사)

3. 신나는 여성학 수업 만들기를 위한 제안

2월 안에서 1. 모니터링 결과보고

1. 우리에게 왜 여성학 수업 모니터링은 필요했는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당황해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분히 내가 있는 곳의 정확한 좌표를 찾는 것이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지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다음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지는 더욱 알 수 없는 것이 된다. '여성학 수업의 현 좌표 찾기' 아마도 이것이 우리에게 여성학 수업 모니터링이 가지는 최소한의 의미일 것이다.

그 동안 연대 내에서도 여성학 수업의 변화를 요청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존재해 왔다. 과다한 인원, 차별화 되지 못하는 수업의 내용들, 충위를 갖지 못하는 교양 여성학의 특성 그리고 나아가 여성학 강사의 선정기준 등 참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여성학 수업이 가져야 할 방향에 다양한 시각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지점은 여성학 수업에 대한 다양하고도 시급한 문제제기들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의 공간으로 연결될 수 있을 때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학은 변화하는 현실적 기반과 민감하게 조율하고,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실천방향을 동시에 모색해야 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성학 수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여성학 내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배우는 사람들'의 불만과 그 만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의 고민이 안정적인 소통의 공간 속에서 토로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현재의 여성학 수업은 자신의 좌표를 찾고 나아가야 할 노정을 머리 속에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학 수업 모니터링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여기에 있다. 모니터링 팀은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할 소통의 공간을 이끌어 내는 밑그림으로 그려진 것이다.

일괄적인 설문조사나 강의평가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보다 섬세하고 구체적인 여성학 수업의 모습을 담아내고 그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우리가 수업의 진행과 그 흐름을 같이 하는 모니터링 팀을 필요로 했던 또 다른 이유이다. 학내 여성학 수업의 축적된 자료를 통해서 여성학 수업이라는 제도권 교육과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비제도권 여성학 교육의 연계를 도모해 볼 수 있다. 또한 강사에 따라 불안정하고 단절적으로 진행되는 현 여성학 수업의 문제를 축적된 경험의 공유를 통해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성학 수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여성학 수업의 현 위치를 확인하는 계기로서, 여성학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의 공간을 꿈꾸는 밑그림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학 수업의 축적되어 가는 경험으로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

2. 모니터링 팀은 어떻게 구성되고 진행되었는가

2000년 1학기 여성학 모니터링 팀은 연세대학교 제 12대 총학생회와 여성학 자치도서관 feminary가 주체가 되어 구성되었다. 1학기에 개설된 <여성학>, <여성학>, <남녀평등과 인간화>, <성과 남녀관계>의 총 4개 여성학 수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했고 그 결과 <여성학>에서 3명, <여성학>에서 1명, <남녀평등과 인간화>에서 2명, <성과 남녀관계>에서 2명이 각각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총 6명의 모니터링 모임이 진행되었는데, 각자가 왜 여성학 수업을 듣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발점으로 하여 수업의 진행내용과 진행방식을 매 모임에서 공유하면서 수업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방식으로 모임은 전개되었다.

3.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각 수업의 개괄

[여성학 수업]

I. 여성학 수업의 성격

여성학 수업은 여성학 수업 중에서도 문학이라는 특정 부분으로 그 수업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수업이다. 그러므로 이 수업에서 다루는 중심적인 것은 수업 제목 그대로 문학을 여성의 관점으로 보고 재해석하는 것이다. 교양수업이므로 수강생들은 한 단과대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단과대의 학생들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인문대가 가장 많은 것 같다. 여성학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남학생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성만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편중된 시선을 배제할 수 있었다는 점이 또 다른 이 수업의 특징으로 말해질 수 있다. 교수님 또한 문화 전반에 걸쳐서 소외되었던 여성의 관점이라는 새로운 틀거리를 제시해 주시는 반면 한쪽으로 치중되는 시각을 경계하며 오히려 문화에 대한 각자의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II. 수업의 진행방식

이 수업은 주 1회(목요일 1교시)의 교수님의 강의와 주 1회(화요일 2,3교시)의 학생들간의 토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i) 교수님의 강의

수업은 첫 2주간 교수님의 페미니즘 전반에 대한 역사와 이론의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 그리고 우리 나라의 페미니즘 전반에 대해 대표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역사를 강의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의 수업에서는 목요일에 그 다음주에 토론했던 작품들에 대해 그 작품이 페미니즘적 측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작품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상징이나 사건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였다.

ii) 학생들의 토론

학생들은 한 주에 토론하기로 되어있는 문학작품이나 영화를 미리 보고,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이나 느낌들을 현실의 자신에 대입해 적어오는 쪽글을 학기 내 5회 이상 제출하기로 되어있으며, 학생들은 상당부분 이 과제로 인해 토론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갖추므로써 매주 토론을 원활히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조를 편 후 조장을 정하고 교수님이 각 작품에 해당하는 토론 주제를 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각 조에서 토론하고자 하는 세부주제를 2, 3개 정한 다음 그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을 1시간정도 한 뒤 각 조에서 토론된 내용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각 조에서 어떤 내용이 토론되었으며 자신들의 조와 어떻게 다르게 접근했는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iii) 조별 프로젝트

중간고사가 끝난 후부터는 여성에 관련된 주제들 중 자신들이 원하는 주제를 골라 관심이 일치하는 사람들과 한 조를 이뤄서 그 주제에 대해 조사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조가 확정된 이후에는 작품토론에서도 프로젝트 조끼리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조별 프로젝트는 5월 30일부터 시작해서 매 시간마다 조들이 발표함으로써 수업을 대신하게 된다.

III.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도와 만족정도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도는 타 교양수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교수님이 일일이 얼굴을 확인하시면서 출석을 부르기 때문에 대출은 불가능하고 출석률도 상당히 높다. 의무적인 쪽글 제출을 위해 제시된 작품의 속독은 필수적이고 따라서 토론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보장된다. 작품들 또한 남성은 새로운 시각이라는 측면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얘기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던져줄 수 있는 것들로 선택되어 있어서 토론에서도 상당히 활발한 문제제기와 의견개진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그리고 조별 프로젝트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원하는 방법과 방향으로 진행을 이끌어감으로써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겠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듯 하다.

【성과 남녀관계】

성과 남녀 관계는 다른 여성학 수업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인기 과목이다. 특히 수업 제목이 주는 수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타의 여성학 수업보다 더 강한 것 같다. 또한 수업이 매우 재미있다는 평가와 함께, 약간은 야릇한 상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고 저 학번보다는 고 학번이 더 많은 여성학 수업이 되었다.

성과 남녀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감은 모니터링 설문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연애와 결혼, 남과 여의 성에 관한 관념의 차이, 섹슈얼리티와 성정치 등에 관한 내용을 배울 것으로 기대한 학생이 많은 편이었고, 실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그 기대치는 조금씩 달라

지는 경향을 보였다.

성과 남녀 관계는 수강 인원 300여명 이상에 고정적인 관계로 강의 중심의 수업일 수 밖에 없었으나 토론이라는 방식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었다. 한 주에 한 가지 정도의 내용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업 내용에 관한 쪽글을 내면 그것을 발표하거나 해서 토론을 이끌어 내는 방식이 채택되었고 이것은 수업 초기에 임의적으로 시행되던 토론 -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짧은 토론을 가지는 것 - 에 비해 참여도가 높았고 진행도 원활하였다. 수업의 내용은 성과 남녀 관계라는 이름에 걸맞은 내용들로 진행된 편이었으나 이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그것은 남성의 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데 비해 여성의 성은 여전히 쉽게 얘기되지 못하고 여성의 성심리만이 다루어지는 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동성애와 남성 발기 부전에 대한 외부 강사의 경우 여성의 동성애라든가 여성의 성과 관련한 의학적 문제에 있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나, 성폭력이나 혼전 임신 등의 문제를 다룰 때는 지나치게 여성에 관해서만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성과 남녀 관계에서는 좀 더 여성과 남성의 성을 동등한 분위기와 비율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성과 남녀 관계 수업은 다른 수업에서는 다루기 힘든 부분을 일반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면에서 매우 필요한 수업이다. 그러나 아직 수업의 내용이나 분위기가 모든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것으로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여성학 수업과 마찬가지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보여진다.

【여성학】

이 수업은 크게 강의, 조모임, 발표 세 가지의 수업 형태로 이루어진다. 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기 중 수업은 일주일에 두 시간은 강의, 한 시간은 조모임으로 꾸려왔다.

먼저 강의에 대해 말하자면, 200명을 육박하는 많은 수강인원을 여러 가지 형태의 강의로 끌어 모으려 했다는 점에서 높이 사고 싶다. 강사의 강의는 이론적인 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강의의 규모상 어쩔 수 없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여성학을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바로 조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도 반드시 필요하기에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하겠다. 강의 이외에도 강사는 수업시간을 통하여 수강생들로 하여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진 편이다. 또한 다큐멘터리나 영화들을 봄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재조명하고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조모임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씩 원하는 시간에 만나 자체적으로 정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 양식으로 정리 후 매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내가 속해있는 조의 경우, 조원들간의 친밀도도 매우 높았으며 매주 각 조원들의 성실한 준비와 높은 관심 덕에 원활한 조토론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강의보다는 조토론에 의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훨씬 많았다. 하지만, 학기말이 되니 조모임의 분위기가 조금씩 해이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이에 조모임이 한 학기 동안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실제로 강사는 원하는 조의 경우, 실제 조모임에 참여하여 학생들이 조토론 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조언을 해줄 것을 약속했으나 이를 요청한 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흥미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자재의 사용의 가능성을 심분 활용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여성 운동에 참여하고 동의할 수 있는 기반 지식과 소양을 다질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여성학 수업이 아쉽다.

【남녀 평등과 인간화】

I. 수업 내용

‘성차의 인식과 성의 구성’, ‘몸과 성’, ‘권력과 성’, ‘근대성과 페미니즘’, ‘가족, 결혼’, ‘여성과 일’, ‘성과 문화’, ‘과학과 젠더’, ‘기술의 발달과 여성 삶의 변화’ 등을 각 주의 큰 주제로 삼고 이 주제들을 통해 여성들이 어떠한 위치에 서 있고 어떤 상황에 직면해있는지, 또 그것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인지를 살펴본다. 특히 최근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생명 공학, 기술, 정보화의 문제와 여성의 문제를 관련하여 비중을 두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II. 수업 방식

주당 3시간의 수업시간 중, 학기 초반에는 1시간이 토론, 2시간이 강의로 이루어졌다. 토론은 개별 학생이 발제를 맡는 형식으로 진행되다가 5주차부터는 출석부에 명시된 순서대로 10여명 씩 조가 구성되었다. 수업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주제들을 각 조가 맡아 자료를 조사하고 내부 토론을 거쳐 전체 토론으로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는 토론의 비중이 높아져 주당 2시간이 토론에 할당되었다.

III. 평가 방식

평가는 중간 고사 30%, 출석 10%, 중간고사 이전에 제출한 개별 리포트 20%, 토론 10%, 중간 고사 이후 제출하는 개별 리포트 30%로 점수를 구성하여 이루어진다.

첫 개별 리포트는 수업 내용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5가지 다양한 주제 중에 한가지 선택하여 쓸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 리포트는 사이버 공간과 관련하여 실제 여성 사이트 분석과 관련 글을 가지고 비평하는, 두 가지 선택지를 주어 선택하게 하였다.

중간 고사는 가장 점수 비중이 높은 한 문제는 open question이었는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문제였고 다른 문항들은 참고 문헌과 강의 내용을 숙지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었다.

IV. 수업 분위기

학기 초반에 학생들의 열의는 높았다. 비록 토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은 한정되어 있었지만 경청하는 분위기였고 집중도도 높았다. 그러나 중간 고사 이후 토론 시간이 주로 토론보다는 조발표의 성격을 띄기 시작하고,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가 작용

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관심도가 해이해졌다. 수강생들이 수업시간에 불필요한 소음으로 수업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자거나 다른 일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볼 수 있었다.

4. 첫 번째 이야기 - 나에게 있어서의 여성학 수업

자신의 개별적인 입장과 경험이 결코 개별적인 ‘나의 문제’로만 존재할 수 없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여성학은 서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집어내는 것에서 출발한다. ‘나에게 있어서의 여성학 수업’이 단순히 수업에 대한 개인의 가치평가나 만족도 측정에 머무르지 않고 또한 머무를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나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나의 위치에서 시작된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여성과 문학】

- 한 남 학우의 이야기

저의 수업에 대한 첫 느낌은 “참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인 내용들도 그리 어렵지 않았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의 수업 방식 또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편씩 여성과 관련된 책을 읽고 리포트를 내고 또 같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학우들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 역시 매우 효과적인 수업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포트를 낼 때도 일관된 관점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 정체성에 관련된 보고서를 요구하셔서 부담 없이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같은 책을 읽은 열 명이 조를 짜서 토론을 하는데, 사람 수도 적으니 할말은 다하고 또 다른 학우들의 생각을 경청하는 데도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수업을 맡으신 다른 분께 배울 때는 첫 시간부터 남성에 대한 적개심이 느껴질 정도로 분노하시며 수업하시는 것을 보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번 학기에 재수강하게 되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고 나니 이 수업이 더 좋아집니다.

- 한 여학우의 이야기

그 동안 여성 문제에 관심이 있었지만 제 스스로에게 제대로 된, 체계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정리하고 좀더 체계적인 이론을 얻는 기회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여성 문제를 보는 시각을 좀더 키우고 논리적인 이론들을 습득하는 동시에 제 삶에 대한 저의 시각도 한번 되돌아보고 고쳐보고 싶어요.

토론 수업을 했을 때 제가 속한 조의 분위기는 사실 몇 사람만 계속 말하고 다수는 잘 참여하지 않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이었대기 보다는 토론시간이니까, 그리고 주어진 주제니까 얘기해본다는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읽어오는 사람도 있다보니 자연히 그런 사람들은 토론을 지겨워하고 다른 일을 하기도 해서 전체적인 토론의 분위기를 망치기도 하구요. 이런 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선, 작품을 하나로만 지정하여 조 구성원들이 같은 전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게 한다거나 또는 토론 주제를 전시

간에 미리 공개하여 여성 문제를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조를 매주 바뀌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확정해서 보다 깊고 친밀감 있는 토론이 가능했으면 하고요. 토론시간이 30분이면 너무 짧아 제대로 된 토론을 기대하기엔 시간적 제약이 많은 것 같으니 좀 더 시간을 늘렸으면 해요.

근데 사실 이 수업을 처음에 들으면서 제가 의도했던 것들을 얻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성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여성 문제에 대한 관점 같은 거요.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여성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때까지의 수업에 의하면 그저 여성 문학에 대해 그것을 통해 여성의 문제를 이야기 해보는 데 그칠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드네요. 어쨌든 이 수업이 그저 한 번 이야기해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과 남녀 관계】

- 한 남학우의 이야기

사실 수업을 들으면서 딱히 어렵다거나 부족하다고 느낀 점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교양강좌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성이라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관계는 발전적이어야 하고 궁극적인 판단은 자신이 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과 상대방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수업시간은 대체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사실 수업 중에 듣기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하지 않기 때문이죠. 수업을 들으면서 느끼는 만족감이란 누구나 다 알지만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말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자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업 내용은 남녀 관계에 대해 일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인데 이는 어찌 보면 이기적일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과 사회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단지, 자신과 연인으로서 혹은 결혼 상대자로서의 상대방과의 관계 조율에만 집중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좌우하는 사회적인 제 조건들에 대해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녀의 생리적 특징과 차이점이 자주 언급되곤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성문제의 많은 부분들이 생리적인 원인에 의한 사회현상으로 귀결되는 듯한 느낌을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문제의 인식이 현상에만 머물고 가치판단은 배제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본 수업은 성 현상에 성 문제가 압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즉 성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은 온데 간데 없고 자신의 상대방만을 바라보며 즐겁게 성을 맞이할 잘난 연대생들만 보인다는 조금은 씁쓸한 느낌입니다.

【여성학】

- 어느 여학우의 이야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문의 역사와 이론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 특히 수업 시간이나 조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토론은 내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이들의 다양한 사고를 경험할 수 있어 흥미롭다. 나는 다른 학우들과의 토론에서 정말 많은 것을 얻고 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마주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내 사고의 폭이 넓어짐은 물론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러한 자극은 나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믿는다. 수업 분위기는 대체로 적극적이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기에 기본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교수님의 일방적인 수업보다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토론에 더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

수업시간이나 토론에서 느끼게 되는 놀라운 점 중 하나는 남학우들의 개방적인 사고이다.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더 급진적인 방안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곧 그들 자신도 그들의 발언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즉, 이론으로는 그렇고 말로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적용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여러 담론을 통해 우리의 의식은 어느 정도 남녀 평등한 사회를 향해 열리고 있으나 아직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알 수 있었다.

【남녀 평등과 인간화】

- 어느 여학우의 이야기

이 수업을 들으면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여성학을 접한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근대성과 페미니즘'이란 주제로 수업을 할 때에는 먼저 사회학 분야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근대성에 관해 이야기한 후, 페미니즘과 여성성이라는 것이 근대성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경우를 다루었다. 학문적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인지 별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들었던 여성학 수업과 비교해 볼 때 수업에 대한 집중도는 꽤 높은 편이다. 두 번째 토론 시간에서는 발표자가 여성학이 지니고 있는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여성학이 어느 정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꽤 활발히 자신들의 의견을 드러냈다.

토론과 발표의 형식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수업의 진행 방식이 앞으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 지금의 수업 분위기가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다. 사실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는 것은 강의하는 이가 얼마나 수업에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발표하는 이들의 준비 정도이나 발표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교수님이 지속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지금의 수업 분위기가 끝까지 가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또 다른 여학우의 이야기

이 수업을 듣게 된 동기는 그 동안 교양서적과 아는 선배들을 통해 미적지근하게 접해왔던 여성학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필요로 하던 차에 선배 언니의 권유로 함께 수강하게 되었다.

첫 시간에는 여성에 대한 관점의 시대적 변화 양상을 철학적 논의를 통해 설명하시려 했는데 철학적 바탕이 충분치 않은 내게는 이해하기 힘든 강의라 다양한 학번의 수강생들이 밀집한 교양 수업의 수준으로는 적합치 않은 난이도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 시간부터는 수강생들을 배려하셨음인지 다소 듣기 수월해졌다.

교수님께서 조별 연구 발표를 제안하셔서 조가 편성되고 각 조에 주제가 배당되었다. 아직 본격적인 조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지난 1조의 결과로 볼 때 조 토론이 전체 토론의 흐름을 유도하는 데 별 유익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듯 하였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겠지만 단순히 조별 리포트를 제출하는 선에서 이 의미가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여성학의 이론 정리는 개인에게 맡기셔서 여성 운동사에 관한 책을 읽고 정리글을 내라는 과제를 내주셨다. 현실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상당히 흥미 있고 관심을 유도하는 데에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하지만 이론의 정리 또한 선생님께서 병행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아쉬웠던 점은 공개적인 토론이 실상 여학우들에게는 또 하나의 억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순결' 이데올로기에 관한 토론을 한 경우 남학우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세운 데에 반해 발표한 여학우의 의견은 '지키는 것이 좋다'는 쪽이 지배적이었다. 그러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순결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론을 펼다는 것은 여학우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이지 않았을까. 나에게도 그랬다. 남성들에게는 상당히 말하기 쉬운 문제이다. 순결에 대한 문제에 열린 입장을 보인다면 그는 관대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지만 여성이 같은 입장을 보인다면 아직 이중적인 생각을 가진 다수에 있어 걸은 동조한다해도 속으론 "재 혹시 순결하지 않은 거 아냐."라며, 의견의 표출이 개인의 평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여성에게 억압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5. 두 번째 이야기 - 여성학 수업과 토론

교양 수업이라 함은 보통의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외에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마땅한 내용들에 대한 소양을 갖추게 함으로써 타학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와 현실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냉혹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이 잘 아는 관심분야만 수강하거나, 학점을 잘 준다고 소문이 난 수업을 수강하거나, 강사의 말솜씨가 뛰어나 수업이 재미있다고 판단되는 것에만 몰리는 것도 사실이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수업을 이끌어 가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전공 수업들이 지식 전달에 힘쓰는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면 교양 수업은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 지를 알고 나와의 차이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 역시 교양 수업만이 줄 수 있는 장점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면에서 여성학 수업들은 모두 토론이라는 형식을 -형태는 약간씩 다르지만- 취하고 있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여성학 수업이 지니는 공통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공통의 성격이란 바로 다른 어떤 교양 수업보다도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수업을 통해 얻어진 생각의 변화가 현실에서의 개인들의 행동의 변화까지도 이끌어 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대 여성학은 여성 운동이라는 맥락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을 지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실제로 각 수업에서 토론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까. 아래 표를 보자. 그렇다면 실제로 각 수업에서 토론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까. 아래 표를 보자.

수업	참여 인원의 크기와 특징	토론 형태의 목적
여성학	-한 학기 내내 동일한 조 유지 -토론조에서 조발표	-조원간의 친분 형성으로 토론의 원활한 진행 - 수업 중 조발표 실시
여성학 문헌	-동일한 책을 읽거나 쪽글을 써낸 10여명. -중간고사 이후 프로젝트 조원들로 구성된 토론 조	-가능한 다양한 사람과 토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조원간의 의견 수렴
성과 남녀 관계	-앉은 좌석 주변의 8-10명. -중간고사 이후 자리변경으로 토론 가능한 인물 변화 -전체토론	-지정좌석으로 인한 토론의 어려움 극복 -전체 토론 시 학생들 참여도 요구
남녀평등과 인간화	-조발표를 위해 미리 정해진 토론조 -조발표 후 전체 토론	-수업의 진행과 토론을 유기적으로 조직 -전체토론을 통한 공론화 작업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수업들은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조발표 등을 위한 10여명 안팎의 소그룹 형태와 전체 토론이 그것이다. 또한 그 목적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논의 과정을 통해 수업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성학 수업에 있어서의 토론을 말하고자 함은 무엇인가. 여성학 수업

에서 행해지는 토론에서는 현실의 문제를 다룬다. 여성들이 억압받는 문제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문제, 남성과 여성의 성문제를 비롯한 남녀 평등의 문제, 사회를 구성하는 문화적 코드로 읽히는 여성의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 토론의 역할을 그만큼 중대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부딪히는 것들은 하나 둘이 아니다. 토론에서 다룬 문제들의 본질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었는가. 여성과 남성의 말하기 방식의 차이는 토론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얼마나 해소되었는가. 토론 후에 정말 그 토론이 지녔던 문제의식이 학생들에게 올라갔는가. 최소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하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물론 여성학 수업의 토론만이 가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성학 수업에서 토론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에 가질 수 있는 의문이다.

모니터링 회의에서는 이상적인 토론의 형태에 관해 논의하였다.

- 인원은 10여명 안팎.
- 토론에 임하기에 앞서 토론 주제에 관한 최소한의 자기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 가능하다면, 가치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간사를 포함 할 것.(이 간사는 현재 학내 여성 운동을 하면서 그 수업을 듣고 있는 활동가이거나 조교)
- 토론을 통해 얻어진 내용은 생산적으로 남길 것.(조 발표나 리포트의 형식도 가능할 것이다.)
- 토론 중에는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존중되는 한편, 개인의 의견이 개인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지 않을 것.

등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이상적인 형태라 할 것이다. 사실 수업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인 조건이므로 마지막 조건을 제외한 부분들이 수업에서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토론조를 한 학기에 한 번 혹은 두 세 번 정도로 만들어 주되 각 조의 조장을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로 정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조교들이 함께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토론이 있기 한 주정도 전에 혹은 전체 커리큘럼 정보를 제공할 때 토론의 주제를 알려주고 토론이 끝난 후에는 그 내용을 발표하거나 리포트로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수업 중에 이 모든 것을 위한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대신 특정한 조가 유지되게 함으로써 수업 시간외에도 조원들이 모여 자연스러운 토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이라는 방식은 여성학 수업 뿐 아니라 교양 수업, 나아가 전공수업에서도 유용한 방법이다. 특히 여성학 수업처럼 현실 참여 의식과 관련한 수업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단지 각 수업의 특성에 의해 토론의 형태나 방법이 조율되기 어렵다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여성학 수업을 좋아하고 졸업하기 전에 한 번쯤 들어 봐야 하는 수업으로 판단하는 만큼 여성학 수업의 방법에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6. 세 번째 이야기 - 여성학 수업, 이런 시험 어떨까요?

【여성학 문학】

▲ 중간고사 출제방식

5문제 중에서 2문제를 선택해서 서술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들은 페미니즘 역사와 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과 토론했던 작품들의 작가(박완서 등)에 대한 것들 예를 들면 그들의 작품세계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다. 중간고사 전까지의 수업이 페미니즘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들을 배운 것과 작품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수업에서는 전자에 충실한 그리고 작품에 대한 것도 작품 그 자체나 작가에 대한 사항들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그런 객관적인 사항들에 대한 문제들이 거의 출제되었다.

▼ 이런 시험은?

중간고사 전에 토론이 있었음에도 그 토론으로 인해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이나 변화된 자신의 관점이나 시각 등에 대해서는 서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문이론 전반에 관한 것도 통틀어 묻는 식이었고 자세하게 묻는 것은 토론주제로 제시되었지만 그것이 토론에서는 거의 얘기되지 않았던 그래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따라서 사실 제대로 페미니즘 이론과 인물들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수업시간에 들었던 사람들과 이론들을 그저 외워서 적는 식밖에 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차라리 배웠던 페미니즘 이론이나 인물에 대해 미리 자세히 조사해오게 해서 시험 시간에 그것을 적는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일부분일지라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제대로 자세히 알게 되지 않을까 한다.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문학작품을 자신의 생각대로 고쳐보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작품 하나를 창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즉, 이 수업은 다른 여성학 수업과는 달리 문학작품을 가지고 다루는 수업인 만큼 그 특성을 살려서 수업시간에 다루는 영화나 작품 중에서 자신이 한 개를 골라서 그것을 자신만의 여성에 대한 관점이나 현실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도록 즉, 자신의 여성으로써의 혹은 여성에 대한 남성으로써의 시선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각색을 해보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좀더 진보적인 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좀더 봉건적인 쪽으로 각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토론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도 읽을 수 있다는 면에서도 그리고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종합적인 그들의 관점을 알 수 있다는 면에서 본다면 괜찮을 것 같다.

【성과 남녀관계】

▲ 중간고사 출제방식

성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적힌 책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정의나 이론에 대한 설명을 묻는 주관식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거의가 성에 대한 학문적인 정의나 이론을 묻는 내용이었다.

▼ 이런 시험은?

시험출제가 다소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자신의 생각을 적기 보다는 그저 책에 있는 내용을 기계적으로 외워서 그것도 그저 학문적인 이론에 관한 것을 적는 식이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은 어떨까하고 제안한다.

1. 신문 만들기

자보 만들기과 유사하게 커다란 종이에 여성학 수업에서 문제제기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런 문제들을 사라졌으면 혹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하는 기사들을 써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여성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와 떨어져 생각할 수 없으니까.

2. 성명서 만들기

여성문제와 관련한 사항들을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성명서를 만들고 50인 이상 자기가 속해 있지 않은 단과대에서 서명 받아 오기. 자신의 생각을 설득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반면 그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

【여성학】

▲ 여성학은 중간고사를 리포트로 대체했다.

▼ 이런 시험은?

여성학 수업에서 단답형 문제로 학생이 그 수업을 듣고 느낀 것을 제대로 검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시험의 문제는 광범위하면서도 수강생의 평소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근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예로 들게 함으로써 그가 평소에 얼마나 자신의 여성주의에 대한 시각을 현실에 적용시키려 노력했는지도 알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여성학에 대한 입지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녀의 '차이'와 '차별'의 경계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어디까지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차이이고, 어디서부터가 차별인지를 각자가 정리하고 있어야 만이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개진하면서 구체적 예도 들어주길 바란다.

나라면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운동들을 보면 느끼는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제출해 볼 것이다. 여성학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면 누구나가 여성문제와 운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과 지식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은 분명 자신의 논리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운동을 보는 시각이 갖추어져 있을 것이고 이를 보면 그들이 구체적이 생각을 알 수 있음은 물론 여성운동가들에게도 커다란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여성운동을 함에 있어서 운동가 이외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귀를 기울여 듣고 반성해보아야 한다. 이는 더 나은 여성운동의 뒷받침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여성학에 기반 하여 서술하라는 문

제를 낼 것이다. 가령, '군가산점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라든지 '사내에서의 남자상사와 여직원간의 대화를 제시하고 이를 성희롱으로 보아야하나 아니면 단순한 사교적 농담으로 해석해야하나' 등과 같은 문제가 그 예가 될 수 있겠다.

【남녀평등과 인간화】

▲ 중간고사 출제방식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토론과 관련해 잠깐 잠깐 언급해주신 문제들이 주로 나왔다. 한 문제는 교수님이 미리 나온다고 가르쳐주셔서 대비하게 하였고 나머지 문제들은 토론과 관련해 포괄적인 문제전반에 대해 자세한 지식을 그와 관련된 참고문헌들에서 내용을 확인 함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 이런 시험은?

한 주의 주제는 포괄적이었던 반면에 주로 토론이 이루어진 것은 좀 더 자세한 문제들이었다. 그로 인해 다소 시험이 토론에서 약간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에 비해서 시험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에 대한 것도 좋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한 각자의 의견을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7. 마지막 이야기

▲ 이야기 하나 : 너 누구? 아까 그 여학우.

한 학기가 정신없이 지나가 종강에 이르고 있다. 여성학 수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모니 터링에 참여하면서 주로 개별 수업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어왔고 나의 역할도 그 정도에 한정될 줄 알았는데 보다 전반적인 관점에서 정리글을 쓰려니 막막하기만 하다. 개별 수업이 아닌 연세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학 강의 전반의 버전업은 연세 여성학의 발전과 학내 여성 운동의 활성화의 전제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성학 수업 전반을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회피하게나마 제시 할 수 있으려면 '여성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여성학에 대한 초보자로서, 그리고 여성학 수업을 처음 듣는 수강생으로서, 또 동시에 2개의 여성학 강의를 듣고 있는 입장에 서서 생각을 풀어나가고자 한다.

내가 동시에 듣고 있는 두 수업은 수업 방식에 있어서 '조별 발표와 토론'이라는 동일한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다르기도 하고, 수업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두 수업 중 내가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듣고 있는 수업은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고 간단히 감상문을 써야 하는 등, 수업 준비 부담은 다른 수업에 비해 월등히 크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과 열의는 더 뜨겁다. 그리고 아마도 그 방식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풀어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토론 또한 보다 분절된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중 앞에 나서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토론 참여자끼리 나눌 수 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특히 여성학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혹은 여성학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을 남성 수강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 이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이론이나 딱딱한 논의들이 아니라 문학이나 영화 등의 부드럽고 친근한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수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 또한, 찬성 반대의 구도로 끌고 나가지 않고도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주제가 주어진다. 어차피 문화 상품의 이해와 해석엔 정답이 없고 수용자 각각의 가치관과 배경에 의거한 다는 것이 무언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 수업이 이론적 논의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해도 결코 그 수업의 질에 있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 문화에 반추된 자신의 경험과 일상을 성찰해보고 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수업에서 다루는 페미니스트 문학의 내용이 너무나 과장되고 수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남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이 문화산물들은 "허구"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반발 없이 수용되면서 역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커리큘럼을 소화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일상을 성찰하게 하는 것이 적어도 초보자와 남성들에게는 효과적인 여성학 수업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자신의 일상은 충분히 성찰한 상태이고 자각한 상태의 학생에게 있어서라면 위와 같은 수업 방식은 반복적이고 낭비적인 것으로 느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이제 일상의 성찰에서 근거한 생각의 체계들, 이론의 학습과 그를 통한 문화비판 등이 효과적으로 수용되고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까지 습득하고 내면화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행동화하는 데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일까.

여성 운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일상'에 있다고 들었다. 문제가 출발하고, 문제를 인식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도 바로 그 현장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여성학 수업 또한, 일상에서부터 문제 의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또 그 문제를 일상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를 고민하게끔 유도해야 한다.

좀 더 접근하기 쉽고 흥미로우면서 스스로 문제 의식을 발견해내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이 현재 교양 수업으로서의 여성학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주의적인 메시지를 담은 문화도구들을 이용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한다면 강사가 굳이 직접적으로 말하려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내면화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사회학이 그렇듯 사회학의 한 분과로서 분류되어 있는 여성학은 '잡학'의 성격을 띤다. 모든 학문 분야에서 여성학과 연계가 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각 단과대마다 전공과 연계한 여성학 수업을 '전공 선택'으로서 개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학생이 전체 정원을 25%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4년간 4개의 수업만으로 -그것도 1개의 수업은 그 성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여성학에 대한 이해를 쌓기는 힘든 노

릇이다. 자신의 전공과 연계된 여성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공부를 계속해나가는 과정에서도 혹은, 사회에 진출해서도 여성주의적 시각을 견지하며 문제를 보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 이야기 들 : 나 누구? 아까 그 남학우.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참으로 신선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 드린 글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이런 토론 수업은 참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과 느낌을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설명하며 또 그들의 그 문제에 관한 견해를 들어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던 저에게 수업 초반에 설명해주신 여성학에 관한 기초는 정말 제 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대다수의 학우들 -특히 남학우들-은 여성학에 관해서 저만큼 잘 모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수업 초반의 여성학 기초에 관한 커리큘럼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수업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드렸구요, 물론 토론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니터링 팀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의 방식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리 주제를 정해서 쪽글을 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책을 읽고 자유롭게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다른 학우들의 생각을 듣는 가운데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저는 '저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이해를 한다'는 것과 통할 수도 있으니깐요. 그리고 토론이 끝난 후 교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쪽글을 읽어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비평보다는 생각의 다양성을 강조하시는 것도 좋았습니다. 다음번 쪽글을 낼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매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쑥스럽고 조금 어색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제가 속한 조는 무난히 다들 자기의 생각을 소신 있게 말했던 것 같네요. 지금의 토론 방식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커리큘럼에 대해서 저는 만족했습니다. 특히 제가 웃으면서 또 킁킁거리며 봤던 '처녀들의 저녁식사'라든지, 또 전공수업에서 딱딱하게 보였던 '핸드 메이즈'등도 이번 수업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생각해보았던 것도 재밌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른 생각으로 접근해보고 생각하는 것도 의미 있었고 즐거웠습니다. '또 하나의 문화'라는 잡지는 이번 수업에서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도서관에 가서 하루 엔종일 그것만 본 날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수를 줄이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은 꼭 고쳐야 할 문제 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학우들이 저처럼 여성학에 문외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들었던 이 수업은 정말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을 교양선택이 아닌 교양필수로 했으면 해요. 물론 지금도 많은 학우들이 듣고 있긴 하지만, 교양 필수로 하면 인원수도 많이 줄지 않을까요?

이번 수업을 들으며 제가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여성 문제에 대한 시각의 변화”입니다. 프로젝트 준비를 하면서 제 친구와 ‘반 성폭력 학칙제정’에 대한 면담을 했는데 친구가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폄하를 한다고 제가 화를 낼 정도였으니까요. 대다수의 남학우들이 이런 여성학 수업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야기 셋 : 문제의 제시와 해결, 그 간극을 넘어서...

성(性) 특히 여성에 관계된 것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난 항상 느끼는 한계점이 있다. 그것을 여성학 수업을 받는 동안에도 그리고 끝나면서까지 난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한계점은 다름 아닌 여성의 문제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접근의 기준 자체가 틀린 것이다. 즉, 출발선이 다르므로 항상 둘의 논의는 어딘가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답답해하게 되는 것이다. 출발선의 차이란 다름 아닌 여성에 대한 시각, 정확히 말하자면 말해지는 여성에 관한 문제에 대한 시각의 차이인 것이다. 즉, 여성은 주제로 던져지는 많은 일들을 자신의 현실로 느끼고 현실에 대해 얘기하는 반면에 남성들은 그저 새로운 하나의 관점을 듣는 듯한 태도라는 것이다. 즉, 한쪽은 현실을 얘기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새로운 이론하나를 얘기하듯이 하는 차이이다. 그러다 보니 항상 얘기를 함에 있어서도 답답함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여성학 수업에 대한 만족도나 기대에 있어서의 차이도 발생하는 것 같다. 즉, 여성들은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는 이미 느끼고 있는 것으로 그것에 대한, 그런 불평등이나 차별에 대한 해답을 원하며 여성학 수업을 듣는 반면에 남성들은 새로운 하나의 학문을 듣는 듯이 즉, 사회를 보는 새로운 하나의 관점을 배우는 듯한 태도이므로 그들은 새로운 하나의 관점제시만으로, 새로운 시각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그 수업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남학생의 경우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가르치거나, 문제점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 전제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해보고자 하는 교수님보다 중립적인 면에서 학생들에게 문제점만 던져주시는 교수님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 그들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런 문제를 짚어주지 않고 바로 그것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한다든지 할 때는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여성에겐 필요 없을 수도 있는 현실의 문제점과 그런 상황을 알려주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보통의 남학생에게 중심을 맞추고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여학생들에게는 자신의 현실을 다시금 반복해서 듣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됨으로써 그들의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그렇다고 여학생들에게 맞추자니 남학생들에게 거부감을 줄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이런 것을 볼 때 여성학 수업을 단순 현실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런 문제점을 현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는 수업과 그 관점을 아는 것을 전제로 그것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탐구하는 수업으로 나뉘어 수업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즉, 여성학 수업의 차별화와 레벨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

그실 안에서 2. 여성학 관련 강의의 문제점: <여성학>의 경우

이 소 회

1999년 6월 5일 여성연구소 주최로 “여성학의 비전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했을 때도 여성학 관련 강의의 비전업을 위한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룬 것은 별로 없고 여성학 모니터링팀이 이러한 모임을 위해 지난 한학기 동안 꾸준히 작업해 온 것이 일련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학 관련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부터 여러가지들을 언급할 수 있겠으나 이 지면에서는 <여성학> 강의를 예로 들어 현재 여성학 관련 강의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남녀 비율을 분석해 보면 남학생들의 수강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여학생들이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형편이다. 수강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년과 전공을 분석해 보면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고학년의 자연계열, 상경계열 등 비문학 전공자들이 많다.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학년, 특히 1학년의 인문학부, 2학년 이상의 사회과학부, 또 3,4학년의 음대 전공자들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수강 신청 경향은 강의실에 들어오는 남녀 학생들이 어떠한 경험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토론 프로그램일 경우 학생들의 학년, 성별, 연령 등의 요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여학생들은 <여성학>이라는 강좌를 통하여 대학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여성주의적 시각의 정립을 기대하고 강의실에 들어오는 반면 남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교양 정도로 배우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강의실에 들어온다. 작년 워크숍에서 보고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세대학교에서 여성학 관련 강의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75.8%가 여성학 관련 강좌의 목표를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정립”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오직 3.8%만이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슈는 현재와 같은 강의 조건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정립”을 도와줄 것인가이다.

한 학기 16주 동안의 강의는 4주 동안의 이론, 8주 동안의 토론, 2주 동안의 공동 연구 발표, 그리고 2주 동안의 중간/기말고사로 이루어져 있다. 여성주의적 시각을 정립 내지 고양시킬 수 있는 부분은 주로 토론과 공동연구 발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론 강의 부분이 <여성학>에 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인 반면 토론과 공동연구 발표는 남녀 학생들 상호간의 토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므로 이 강의의 핵심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매주 토론에 참여하기 전 1매 정도의 쪽글을 써오는 작업은 학생 개개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토론에 임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매 학기 딜레마는 토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학> 강의를 강의자와 학생, 또 학생들 상호간의 “connected teaching”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기마

다 토론팀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는 학기말의 공동연구 발표 결과물의 내용과 한학기 강의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는 중간고사 이전에는 각자가 읽은 텍스트 중심으로, 중간고사 이후 공동연구 주제가 발표된 후에는 주제에 따른 연구 프로젝트팀 별로 토론 팀을 운영하고 있다. 중간고사가 실시된 이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동 연구 주제를 선택한 후에야 토론 팀이 결정되는데 이때 강의자의 의도는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고 각 팀마다 자율적으로 토론을 운영한다. 매 학기 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마다 느끼는 애로점은 학생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다양하여 토론 효과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주의적 사고가 많이 보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모든 학부 학생들에게 알려있는 강좌이다 보니 저마다 다른 “여성주의” 개념을 갖고 강의실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를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연결시켜 학생들의 여성주의적 시각을 정립 내지 고양시키는 일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매우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남학생과 학내 자치 여성운동을 하는 여학생들이 같은 토론 그룹에 배정되었을 경우 그 토론은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아니라 모두에게 무력감과 실망감만을 안겨주기 쉽다. 하지만 4주 내지 6주 동안의 공동 연구 기간을 거치면서 슬기롭게 이러한 간극을 해결해 나가는 팀들도 간혹 있어 희망적인 면도 보인다.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이번 학기 ‘反 성폭력 학칙 제정’ 팀에서 조별 토론 상황을 그대로 상황으로 재연하여 발표한 예는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성학 관련 강의 중에서도 선수과목, 또는 외국어 강좌처럼 초급, 중급 등으로 나누어 여성학 관련 강의의 질을 차별화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성학 개론> 1, 2 등으로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학생들의 경우, 특히 고학년 여학생들의 경우는 이 강좌를 통해서 교양 수준의 지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성주의적 사고를 심화, 확장시키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들이 사회에 나가 어느 분야에서든지 여성주의적 시각을 갖고 “제대로” 활동하려면 지금보다는 질이 높은 강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강의를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경험할 수 있는 토론은 이미 이러한 여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며 학습 효과도 없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들이 여성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 한 여성주의적 사고를 심화,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는 미래의 유능한 여성 인력들이 여성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성적 자아를 키워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수위의 여성주의적 사고를 갖고 강의실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주의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차별화된 강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학기말 2주 동안 행해지는 공동연구 발표 프로그램 역시 각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의 열의에 따라 그 연구 발표물들의 질이 결정된다. 매학기마다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공동연구 발표 주제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연세 캠퍼스 내 학생들의 성의식과 관련된 주제

는 매학기 제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학 개론>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금/여기”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연세인들의 성의식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또 성(gender/ sexuality)과 관련한 이슈가 이론이나 책 속에 객관적 지식(objective knowledge)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는 미세한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메카니즘임을 체험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캠퍼스라는 공간은 남녀 학생 모두가 “나의 일상적 경험”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토론 주제이다. 이렇게 8명 정도가 함께 작업한 공동 연구 결과물들은 평가가 끝나면 그냥 사장되어 버리고 만다. 하지만 학생들이 공동 연구 형태로 발표하는 자료들은 “시의성이 매우 강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 도달한 여성학 자치 도서관 (feminary) 같은 곳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학생들이 공동으로 생산한 지적 자산이 축적된다면 연구 참여자들의 인적 구성은 매학기마다 바뀔지라도 연구결과물들의 질은 학기가 지나갈수록 높아갈 것이다. <여성학 개론> 뿐만 아니라 여성학 관련 강좌의 대부분이 이론, 토론, 현장 조사, 공동 발표 등이 어우러져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자료를 모아 두는 것 자체가 다음 학기 수강생들의 공동 연구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강의 자체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수강생 규모이다. 현재 <여성학 개론> 강의는 수강생 100명 규모인데 이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이다. 2000년 1학기 현재 수강인원은 117명이다. 차별화된 여성학 관련 강의의 설장과 더불어 좀 더 심화된 강의의 질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수강생 규모를 50명 내외로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 이 문제는 학교 내부의 제도적인 문제와도 연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강의의 질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수강생 규모를 줄이는 작업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현재처럼 선수과목 없이 모든 학생들을 위해 설장되는 강좌는 최대 100명 규모로 운영된다 하여도 선수과목을 요구하는 심화된 코스를 이 규모로 운영한다면 효과가 감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성학 모니터링 팀>의 역할이다. 여성학이 다학문적인 특성을 갖고 인식론적으로 경계를 허무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를 강의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은 강의자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다. 학생들이 수동적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하고 의미 생산자로서 주체적으로 토론을 꾸려가는 한편 수강과 더불어 학내 자치 활동에 참여할 때 강의 자체의 시너지 효과는 배가된다. 특히 다른 학생들에게도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활기와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이번 학기 <여성학 모니터링 팀>의 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 “Feminist Practice in the Classroom”의 일례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여성학 강의와 관련된 연세 캠퍼스 내의 여러 교육 주체들의 의사소통의 공간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교실 밖에서 1. 연세 여성학 수업 개설과 관련된 제도적 틀

김 명 진

여성학 관련 수업의 차별화와 점진적 발전을 위한 지속적 소통 공간의 확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그런 과목들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제안이 되고, 실제로 개설되는 과정을 현실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개설 과목의 현황과 그 취지는 2000년 1학기 수강편람에서 발췌하였고, 실제 개설되는 과정은 여학생처 관계자분의 자문을 구하였다.

관련 수업들의 개설 취지

연세에서 개설되는 여성학 관련 과목은 위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여성학, 남녀 평등과 인간화, 여성과 문학 그리고 성과 남녀 관계로 총 네 과목이다. 개설 전공은 사회학으로 표기된 남녀 평등과 인간화를 제외하고는 여학생처로 나와 있다.

수강편람에 기재된 각 과목의 교과목 개요, 혹은 수업 목표는 다음과 같다.

네 과목 전부 교양 선택(학부선택)으로 분류된다.

[여성학 - 사상과 인간 이해(제6영역)]

영미 문학 또는 러시아문학 작품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 중 몇 편과 우리 나라에서 활발한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작가들의 동, 서양문학의 최근 작품을 읽으면서, 여성적인 삶의 인식 및 심리에 대한 이해의 장을 함께 모색하기로 한다.

[여성학 - 가치와 사회 구성(제7영역)]

여성학은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의 학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문영역에서는 남성의 시각, 남성의 입장, 남성의 경험이 중시되었던 점에 감안하여 여성학은 여성의 경험, 여성의 입장, 여성의 관점에서 시작되는 학문이다. 여성학 수업과정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수업 과정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산업사회로 전환된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현실과 그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족, 성, 일, 자녀양육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본다. 두 번째는 우리사회의 대중문화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페미니즘을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기존의 동화, 광고, 영화, 포르노그래피와 사랑, 결혼, 성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페미니즘을 표방한 작품도 살펴본다. 세 번째는 여성도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치적 분리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실천 모형을 각 사회에서 찾아본다. 두 번째 부분은 가부장제적 여성관의 허구를 비판하기 위하여 영화 네 편을 본다. 세 번째 부분은 분야별 같은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성차별주의를 논의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찾아 대안을 모색하여 발표하고 토론한다. 강의의 특색은 첫째는 학생 각자가 우리

사회의 법, 제도, 이념, 관습, 문화 등에서 인간 억압적인 측면이 없는가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비판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분석력과 사고력을 증시한다. 세 번째는 학생, 교수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다양한 방법으로 개방된 수업을 한다.

[남녀평등과 인간화 - 가치와 사회 구성(제7영역)]

가) 강의 개요 : 이 강의에서는 우리사회에서의 삶을 비인간화하고 있는 가장 오래 되었으면서도 쉽게 의식되고, 느껴지지 않는 기제인 성불평등의 현실을 드러내고 나아가서 성평등한 문화, 인간관계, 경제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찾아본다. 나) 강의 형식 :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강의 및 토론, 둘째 부분은 다양한 형식의 발표 및 토론 그리고 영화, 연극 감상 등으로 진행한다. 다)평가 방식 : 출석과 소모임 활동, 발표 및 수업 종합 보고서로 평가하고 소모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3회의 보고서와 종합보고서로 평가한다.

[성과 남녀관계 - 과학과 자연관리(제9영역)]

성적 존재로 태어난 인간으로서 자신의 고유성과 존귀함을 재발견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고, 성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의 중요성을 알게되어 성관련 건강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지적, 심리적 준비가 될 것이다.

다른 자료가 아닌 수강편람 속에서 강의들에 대한 소개를 찾아 지적인 것은 학생들이 직접 보고 선택하는 수업 선택의 기본자료로서 수강편람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실제로 진행되었던 수업들(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보고 참고)이 학기시작 전의 강의 목표와 어떻게 맞닿아 있고, 보충된 부분과 불충분한 부분이 좀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수업의 개설 과정

위의 과목들, 혹은 앞으로 개설될 가능성이 있는 여성학 관련 수업들은 여학생처 내부의 "여성학 교양과목 연구회의"를 통해 검토되고 교무처로 실질적 수업 개설을 제안하게 된다. 이때 여성학 교양과목 연구회의는 보통 여학생처, 여성학 강의를 담당하셨던 교수님들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강사님들로 구성된다. 위의 연구회의에서 제안되는 것은 과목과 더불어 담당 교수전까지이다. 그렇게 제안된 수업에 대해 교무처의 "교양과목 책임교수회의"에서 일차 심사를 하여 통과되면 "교양 교육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대강의 수업 개설과정은 그러하고 강의 규모결정이나 담당 강사 선임 등은 변동 사항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이미 말고 있던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연세에서 신나는 여성학 수업을 위해서.

사회학, 문학, 간호학 등 담당 교수진의 전공분야와 소속 단과대가 다름으로 인해 학문의 한 범주인 여성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간의 의사소통은 힘든 실정이다. 때문에 수업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매년 축적되는 학생들과 선생님의 성과물들이 축적되지 않고 학기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동시에 수업들간의 연계되는 지점들을 쉽게 알 수 없다.

게다가 현재 수업 개설의 과정 속에서는 강의 평가가 시행되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힘들다. 심지어 현재 개설되는 과목에 있어서도 각 수업들의 같은 점과 다른 점, 혹은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여성학 수업 관련한 선생님들이 원활하게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수업 내용과 방식, 멀리는 강의 개설에 관해서까지 직접 듣는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 반영 통로가 구성되어야 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여성학 관련 강좌 개설 과정 - 총여학생회 활동 중심으로

이신인경(서울 시립대학교 제14대 총여학생회 부회장)

1. 초기 여성학 강좌의 모습

1989년

여성운동이 학문과 멀어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여성학을 개설하고자 노력한 결과 1989년 여성학이 개설되었다.

"여성문제 전반에 걸친 이론적인 소개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식을 계발하고 오늘날 여성운동시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접하게 함으로서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여성 지도력을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며, 어떤 특정한 분야에 치중된 것이 아니라 학문간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여성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소개하는 개론의 성격을 띤 과목"으로 3학점(교양선택)인 '여성학'이 학내 최초로 개설되었다.

1990년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문제를 다루는 개념의 "여성학"이 아니라, '현대사회'라는 공간적, 시대적 배경을 한정한 "현대사회와 여성"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것은 학교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총여학생회 단위에서 반발을 샀다.

'여성학'이라는 이름이 '현대사회와 여성'으로 바뀌고 동시에 3학점(교양선택)이었던 것이 2학점(교양자유선택)으로 낮추어 개설되었다. "이 과목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자각과 인식을 높여주는 교양과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 주요내용은 여성 문제의 학문적 인식과 그 외의 연구방법, 여성과 가정, 여성과 사회참여 등이다."

2. 90년대 중·후반 여성학 강의

1989년 처음 학내 여성학이 개설된 이후, 이 강좌에 대한 자료는 1994년 햇살지(총여학생회기관지)에서 처음 발견된다.

1994년

강좌가 위상을 잡아가는데 학내 여성학과 관련된 강좌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했다.

하나는 89년도부터 이어 내려져 온 '현대사회와 여성'이라는 수업과 다른 하나는 총여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3일간의 여성학교였다. 우선 '현대사회와 여성'을 보면,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삶의 조건과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한 이론적인 규명과 해결방안에 대한 실천적인 모색을 강좌 목표로 두고, 성차이에 대한 이해,

성역할의 사회화, 가부장적 성문화, 성폭력의 문제, 성과 사랑, 결혼과 가족,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여성운동 등을 논의 주제로 삼았다.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여성학적인 많은 이론적 논의보다는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남성중심적 사고, 가정과 직장 뿐만 아니라 일상세계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차별의 현실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소규모 토론이라든가, 과제물을 주로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여성문제를 생각해 보는 내용으로 선택하는 등의 방법을 썼다. 하지만 1주일에 2시간이라 여성학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많았고, 100명이 넘는 학생들은 원활한 토론수업을 진행하기에 버거운 숫자였다. 또한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의 경우, 대개 지금까지 자신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양성에 대한 고정관념(여성다움, 남성다움), 남성우월주의, 가부장적 성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여성학적 시각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총여학생회에서 주관했던 여성학교는 성과 일, 현대사회와 성, 페미니즘 문화라는 주제로 3일동안 진행되었다. 하지만 총여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여성학에 대한 이해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채 여름학교를 진행했고 학생들의 참여 수준 또한 저조해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또한 페미니즘 문화를 제외한 나머지 주제가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너무 진부하고 일반적인 내용, 적절치 못한 시간배정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적었다. 학생들은 페미니즘을 대학생으로서 알아야 하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문제로 인식했으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 성, 문화' 등의 포괄적인 주제보다는 전문성과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1996년

12대 총여학생회는 취업이나 성폭력 등의 여학생 문제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써 여학생처의 요구와 함께 여성학 강의증설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학생처 활동범위를 교무과의 업무, 상담 업무 등으로 확대하면서 여학생처가 여성학 강좌 전담부서-여성학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강좌가 개설된 이후 예도 세부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학교기구로써 함께 요구하게 된다. 당시 여성학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2학기에 들어 실제적인 조사와 함께 여성학 강의백서를 만들어 '현대사회와 여성' 과목의 강의평가를 중심으로 시립대 내에서의 이 '수요의 증가'의 성격을 알아보고 나름대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97년

13대 총여학생회 들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12대 때부터 계속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97년 대동제 때 발생했던 화장실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원인이나 문제의 해결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 중 대학 내 구성원들의 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 대하여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다. 성문제나 여성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거나 총여학생회와 같이 학생 자치조직으로서의 해결은 공적,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여학생회에서는 공적인 부분에서 담당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교측에 제도적인 면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매년 이루어졌던 '현대사

회와 여성' 강의 평가에서 70%이상의 학생들이 여성학 강좌 증설 및 분반을 요구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관심사가 좀더 세분화된 '성, 사랑, 이데올로기'로 나타남에 따라 98년도부터 '성과 사랑'(교양자유선택2학점)이라는 강좌가 개설되었다. 기존에 있었던 '현대사회와 여성'은 '여성학'이라는 여성 문제 일반에 관한 강좌로 대체되면서 교양 자유선택에서 교양 선택으로 위상이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립대와 같은 국·공립대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성폭력 사건 이후 학교를 거치지 않고 곧장 서울시 여성위원을 만남으로써 학교측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또한 당시 학교 총장이었던 김진현씨는 언론 출신으로 어느 정도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것과, 딸을 자녀로 둔 교수가 학생처장이었던 것도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몇 년간 누적된 학생들의 의견과 함께 강의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커리큘럼을 자료로 제출하였다.

1998년

'여성해방'에 관한 주요 사상과 이론들을 검토하고,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억압경험에 관한 감수성과 해석 능력을 높이며, 남녀 평등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갖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여성학' 강좌가 생겼으며 '여성주의 시각에서 성과 사랑의 근대적 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성과 사랑의 결합방식과 성격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성과 사랑의 재구성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성과 사랑' 강좌가 개설되었다. 14대 총여학생회는 강좌가 위상을 잡아가는데 관심을 두었다. 학교측에서 약속한 것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역할과 함께 강좌가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총여차원에서 강의평가를 해 학생들의 의견을 받으려 했다. 또한 학생들이 원활한 수업 준비를 위해 학교 도서관측에 여성학 도서 구비, 여성신문 구독, 여성잡지(IF지) 구독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여성신문과 여성잡지는 구독 중이나, 여성학 도서는 꾸준히 구입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총여학생회 자체로는 여성학 과목 시청각 수업을 돕기 위해 관련 비디오 테일을 구비해 총여 내 비디오방에 두기도 하였다.

1999년

15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여성학 및 성과 사랑 강사 선생님들과 연대를 통해 수업 속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학생들이 단지 수업 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여학생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도를 하였다. 강의 뒷풀이나 MT에 함께 가서 총여학생회를 알리기도 하였으며, 총여학생회에서 하는 행사를 부분적으로나마 함께 만드는 시도도 하였다. 이 시도들은 후에 다시 평가가 되어야 하겠지만, 과거 총여 사람들만 고민하고 만들었던 것들이 많은 학생들이 함께 만들면서 더욱 풍성해진 행사를 만들 수 있었고, 16대 총여학생회 정후보가 이 때 만났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남성학' 강의 개설을 정책으로 내걸었지만 아직 국내 남성학의 분야의 미개척으로 강사부족, 커리큘럼 부족이라는 많은 한계와 학생들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해 추진되지는 못했다.

서울시립대는 애초 '현대사회와 여성'이라는 여성학을 대변하는 강좌가 있었기 때문에 강

좌 증설에 많은 이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아무 과목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 강좌 개설시 유익한 점(성의식 변화에서 제도적인 면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즉 강좌가 개설 된 전후, 학생들의 인식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강좌의 문제점(개설된 강좌 수가 적다, 인원이 많다 등등)의 조사와 더불어 학생들이 여성학이라는 강좌 개설을 원한다는 여론 조사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 89, 90, 98 학교 요람과 햇살지와 13대 총여학생회 활동을 했던 선배의 인터뷰를 활용했습니다.

>> 참고로 서울시립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본 학교는 수강신청시 교양일 경우 영역과 상관없이 수강해야하는 교양 필수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누어진 지정된 영역의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양선택(3학점)이 있으며, 그 밖에 의무 조항이 없는 교양자유선택(2학점)이 있습니다.

강사입장에서 본 여성학 수업의 비전업 과정

권 수 현 (시립대 여성학 강사)

I. 비전업을 위한 전제조건(학생 자치 기구 및 학교의 역할)

1. 다양한 여성학 계열 과목 개설(여성학, 성과사랑) - 학생의 다양한 욕구 충족
2. 교양 필수, 50명 인원제한 - 수업의 질, 학생 참여 보장
3. 시청각 수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확보 - 일괄적 관리
4. 매 학기 수업평가 및 다음 학기 반영

II. 비전업의 방법들(강사의 역할 및 태도)

1. 강사 네트워킹

1-1. 강사 네트워킹 방법

- 1) 인터넷 온라인
- 2) 오프라인 모임

1-2. 네트워킹의 기여

- 1) 강의와 관련된 방법론적·내용적 고민의 공유, 해결책 모색
- 2) 강사 간의 심리적 지원

2. 학생 자치 기구와의 유기적 관계

2-1. 자문

- 1) 수업에 대한 학생 욕구 및 의견 수렴
- 2) 자치 기구의 문화 기획 자문

2-2. 선후배로서의 만남

- 1) 집단 및 내공 프로그램
- 2) 여학생 자치 기구 내부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 개인적/사회적 고민

3. 네트워킹의 성과/결과물

1) 여성학 수업, 온라인 공간 만들기

- 수업 시간 이외에 온라인에서 카페를 통한 수업 활성화
- 수업을 듣는 학생과의 네트워킹
- 학생 의견 및 욕구 수렴

2) 자기 경험 드러내기와 치유의 계기

- 강사와 학생 간의 인간적인 신뢰가 가능하면 추후 지속적인 상담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음. 예) 성폭력 피해자 상담. (쪽글-자기 경험 드러내기)

신나는 여성학 수업을 만들기 위한 제안

연세대학교 제 12대 총학생회 & 여성학 자치도서관 feminary

모니터링 팀을 정리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인식되는 문제는 과연 이제 어디에서 이러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여성학 수업은 변화하는 현실적 기반에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그 생명력으로 해야 한다. 다양한 시도와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여성학 수업은 이미 그 존재기반을 상실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상적인 여성학 수업이란 하나의 완결된 답안으로 존재하지도 그리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수업을 만들어 가는 모든 주체가 부단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변화를 모색하는 것 이것만이 여성학의 비전업을 위한 정도(正道)일 것이다. 강사와 학생 모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실천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여성학 수업은 존재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된 여성학 수업은 학내의 다른 실천적 여성운동의 공간과 분리된 제도권 교육으로서의 현 위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현 여성학 수업들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과도한 수강인원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업구성 그리고 여성학 강사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야기되는 불연속적인 여성학 수업의 특성들과 같은 사안들은 지속적인 소통의 공간 속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현실적인 네트워킹 작업이 이루어질 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모니터링 팀은 여성학 수업의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여성학 수업에 대한 안정적인고 지속적인 소통의 공간'을 제안한다. 이번 여성학 모니터링 팀은 비록 총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구성되었지만 지속적인 소통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주체로서는 총학생회보다 안정적인 단위가 필요하다. 더욱이 여성학과가 부재한 학내 상황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공간의 확보는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여러 점들을 고려해 보면서 우리는 예전의 '샌드위치 모임'이 가지고 있던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다. 여성학 수업만을 위해 특화된 '샌드위치 모임'이 생긴다면 어떨까? '샌드위치 모임'을 통해서 여성학 강사들간의 네트워킹을 확보하고 학내의 여성 자치단체들과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실제적인 비전업의 주체를 찾아낸다면 여성학 수업에 대한 모니터링 팀은 지속적으로 꾸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 연구소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여성학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의 통로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논의의 공간이 학내에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